

사회적 지표에 나타난 학생의 모습이 국가 교육과정 설계에 주는 시사점: 보건교육 강화를 중심으로

조호제¹ · 김대석²

고려대학교 교육학과¹, 공주대학교 교육학과²

Study on the Students' Life Reflected in Social Indices and Its Implications for National Curriculum Design Focusing on School Health Education

Hoje Cho¹ · Dae Seok Kim²

¹College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²Department of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National Curriculum design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by analyzing social indices of students' real life based on Oliva's three types of demand for education. Three types of demand are physical, social-psychological and educational demand. **Methods:** This study mainly analyzed recent research data and existing studies relevant to social indices to show students' real life. **Results:** Three types of social indices about educational demand showed that students have many difficulties in much learning time, lacking in sleeping time and physical activities, much stress and suicide attempt. It is supposed that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is the main factor to make such kind of stress. **Conclusion:** Health & safety education, self-esteem inspiring education, reduction of learning burden, physical activities etc are needed to be more reflected in National Curriculum design in the future.

Key Words: Health & safety education, National curriculum design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교육과정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명확한 대답은 쉽지 않다. 그만큼 교육과정은 학생이 살아가는 환경을 고려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담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은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결정하는 학문으로 일반적으로 그 원천(source)을 사회, 학습자, 교과(학문)(Dewey, 1902; Tyler, 1949) 등에서 찾는다. Caswell과 Campbell은 학교 교육과정은 아동의 관심, 사회적 기능, 조직된 지식이라고 하

여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Ornstein & Hunkins, 2007). Oliva (2009) 역시 학생, 사회, 교과의 요구를 분석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목표를 상세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Eisner (1982)도 학생, 사회, 교과의 세 원천으로부터 교육내용을 선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학생, 사회, 교과(학문)를 원천으로 보는 데에는 대체로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학생, 사회, 교과의 3가지의 원천은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을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즉, 교육과정의 원천으로부터 목표 설정, 내용 선정과 조직 등으로 연계되는 것이다.

교육과정의 원천으로서 학생은 수혜 대상자이다. 교육과정 개발자들에게 학생은 교육과정 설계의 1차적인 주요 자원이

Corresponding author: Dae-Seok Kim

Department of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56 Gonjudaehak-ro, Gongju 314-701, Korea.
Tel: +82-41-850-8202, Fax: +82-41-850-8744, E-mail: daesok-kim@hanmail.net

투고일: 2014년 10월 17일 / 심사완료일: 2014년 12월 8일 / 게재확정일: 2014년 12월 15일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었다(Ornestein & Hunkins, 2007). 이것은 교육과정은 학생을 위해 우선 존재해야 하며 따라서 학생의 삶에 유의미하지 못한 교육과정은 존립가치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들의 삶의 실태를 분석하여 부족함을 채우는 교육과정 설계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국가수준 문서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모습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3c).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국가 및 사회적 요구가 국가 교육과정 설계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Lee & Hong, 2010; Back, 2007). 하지만 교육의 직접적 수혜자인 학생을 국가 교육과정 설계에 반영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편이다. 학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설계에서는 학생을 고려하고 있으나 거시적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미흡한 실정이다.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어떠한 삶의 모습을 반영해야 하는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대변하는 각종 사회적 지표에 잘 드러난다. 본 연구에서는 Oliva (2009)의 이론을 분석의 틀로 사용하였다. 이유는 Oliva가 개인적, 사회적, 교육적 유형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Oliva (2009)의 이론에 근거하여 신체, 사회심리, 교육 등의 세 가지 유형의 사회적 지표에 나타난 학생들의 삶의 모습을 분석한 뒤, 국가 교육과정의 역할과 설계에 주는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특히, 교육적 유형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존하는 교육으로서 응급처치와 안전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사회적 지표 분석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모습을 통해 국가 교육과정 설계에 주는 시사점을 제안하는 것에 연구 목적을 둔다.

2. 교육과정 설계 시 사회와 개인의 교육에 대한 요구분석

Oliva (2009)에 의하면 교육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사회와 학생의 요구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교육의 일반목적은 사회와 학생의 공통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학교가 역할을 잘 발휘하도록 하는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와 개인의 요구는 분리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특정한 요구가 사회의 요구에 속하는지 또는 개인의 요구에 해당하는지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양자의 요구는 때로 갈등을 하기도 조화를 이루기도 한다. Oliva (2009)는 사회와 학생의 요구를 각각 수준과 형태의 네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

나 사회 요구의 형태는 분류가 명확하지 않고 시대에 따라 다양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고에서는 특히 3가지 유형(신체·생물적, 사회심리적, 교육적)의 개인의 요구 형태를 중심으로 사회적 지표를 분석하였다.

인류 및 세계 수준에서 사회 및 개인의 요구는 인간으로서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것과 관련이 깊다. 의식주 해결, 생명보호, 가난 및 빈곤에서 해방, 질병에서 자유롭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 공포와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인류의 보편적인 요구로서 빈곤 및 결핍으로부터 자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Oliva, 2009). 한편, 글로벌시대에서 국제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외국어 교육이 국제수준에서 사회의 요구에 포함될 것이다.

국가수준에서 사회의 요구는 경제적 및 사회적 측면과 밀접하다. 그것은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시민교육, 소비자교육, 국제교육, 직업교육, 컴퓨터교육, 양성평등교육, 인권문제나 계층간 차이 문제 해결 등이 여기에 속한다. 국가수준에서 개인의 요구는 개인의 요구 사항 중 국가수준에서 해당하는 것들로서 사고력의 신장, 폭넓고 일반적인 지식 및 소양교육 등이 해당이 된다. 한편, 기초학습능력 향상, 문해교육을 통한 교양있고 교육받는 시민 양성은 국가수준에서 사회의 요구와 개인의 요구 모두에 공통적으로 해당이 될 것이다.

지역사회수준에서 사회와 개인의 요구는 국가수준보다 경제적·사회적으로 특정한 분야에 한정이 된다. 즉,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국가수준의 일반적인 요구는 지역사회수준에서 특정한 분야로 더욱 한정이 된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특정한 산업이나 직업 분야를 준비하려는 개인의 요구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반영되어서 관련 교과목이나 교과외 활동에서 가르쳐 져야 할 것이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요구와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적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특수한 사회문제(예, 지역간 갈등 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요구 역시 교육과정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해당 문제사태를 충분히 공부하여 장차 겪을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및 개인수준에서 개인의 요구는 다양성에 대한 요구이다. 즉, 개별학생의 다양성에 대한 세세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개인의 다양한 흥미, 적성, 수준을 고려하고 정서나 장애 등을 세심히 배려하여 학교와 교사가 교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편, Oliva (2009)는 학생의 요구의 형태를 신체적·생물적 요구 형태, 사회심리적 요구 형태, 교육적 요구 형태의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먼저 신체적·생물적 요구 형태는 운동과 휴식에 대한 요구, 영양섭취, 건강,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 사춘기 시절 겪는 여러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요구,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 학생의 특별한 요구 등이 포함된다. 좋은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창시절에서 성인기까지 겪을 신체적·생물적 필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학생의 건강과 관련한 H. Spencer (1887)의 교육론과 그 맥락을 함께 한다.

사회심리적 형태의 개인의 요구는 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것들이다. 애정, 수용과 인정, 친밀감이나 소속감, 성공, 안정,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자 하는 요구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

마지막으로 교육적 형태의 요구는 교육에 대한 개인의 요구이다. 교육에 대한 요구는 사회변화와 개인의 신체적·심리적 발달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적 형태의 요구는 사회와 개인의 변화에 따라 국가나 사회, 학교, 개인적 수준에서 교육과정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고전교육과 종교교육에서 직업 및 세속교육으로 교육의 형태는 변하여 왔다. 실용성과 생활적응을 강조하는 교육은 역사적으로 항상 시도되었으나 생활과 괴리가 있다는 비판 역시 컸다. 기초학습능력 역시 교육적 형태의 요구로 계속 강조되고 있다.

3. 연구문제

본 연구는 신체적·사회심리적·교육적 유형의 사회적 지표에 나타난 학생의 모습을 분석하여 국가 교육과정 역할 및 설계에 주는 시사점을 제안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갖는다.

- 신체적·사회심리적·교육적 유형의 사회적 지표를 통해 살펴본 학생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 사회적 지표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실제 삶의 향상에 기여하는 국가 교육과정의 역할은 무엇인가?
- 사회적 지표에 나타난 학생들의 삶의 모습이 국가 교육과정 설계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 신체 및 사회심리, 교육적 유형 측면에서 특히 강화될 필요가 있는 보건교육이 무엇인가?

연구결과

1. 신체적 유형과 관련된 사회적 지표

1) 학생들의 신체 건강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학습시간은 계속 증가하여 세계 최고 수준이다(Lim, 2012; Hong & Kim, 2010). 우리나라 학생이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와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TIMSS)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OECD 국가들의 학생들은 주당 30시간 전후로 학습시간을 투입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은 주당 50시간 정도를 투입하고 있다(Hong, 2014). 많은 학습시간 대비 학습의 효율성은 매우 낮다(Hong & Kim, 2010).

많은 시간을 들여 학업과 입시에 치중하는 반면 운동과 건강을 소홀히 하는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아래의 표에 잘 나타난다. 운동 시간이 학년이 높아지면서 적어지고 6시간 이내 수면을 역시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높아져서 고등학생의 경우 남녀 모두 매우 낮은 운동과 수면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습시간 증가 및 학업 스트레스와 관련이 깊다(Ministry of Education, 2013a) <Table 1>.

2) 부족한 신체활동

우리나라 학생들의 신체활동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10~14세 학생들의 하루 생활패턴을 연구한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학습시간이 24시간 중 약 8시간(33.7%)을

Table 1. Student's Exercise and Sleep (%)

Variables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Male	Female	Total	Male	Female	Total	Male	Female	Total
Do exercise hard more than 3 days a week	66.12	41.03	54.05	45.32	21.49	33.93	33.02	12.21	23.15
Do exercise hard more than 5 days a week	-	-	-	18.56	5.99	12.55	13.16	4.79	9.19
Less than 6 hours of sleep a day	4.24	3.43	3.85	7.78	13.66	10.60	38.90	50.58	44.46

Source: Ministry of Education (2013). Student's emotional & behavior report.

차지하였으나 신체활동은 약 12분(0.84%)으로 매우 적었다.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수면시간의 경우 큰 차이가 없으나 학습 시간은 약 2시간 10분이 더 많았으며, 신체활동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약 12분으로 일본 학생들(47분)에 비하여 4배 이상 적었다.

15~24세 학생들의 생활패턴 연구에서 24시간 중 학습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시간 50분으로 일본(5시간 20분), 미국(2시간 26분), 핀란드(6시간 6분) 등 비교대상 국가보다 훨씬 많았다. 한국 학생들의 여가 시간이 학원, 과외 등의 학습시간의 연장으로 많이 활용됨을 고려한다면 실제적인 학습시간은 더 많은 것으로 추측이 된다. 반면, 수면시간은 약 7시간 17분으로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적었다. 신체활동 역시 비교대상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낮았다(약 12분). 우리나라의 학생들의 학습시간은 세계 최장인 반면, 신체활동 및 수면시간은 세계 최저인 것이다(Kim, An, Jang, Kim, & Choi, 2009) <Table 2>.

2. 사회심리적 유형과 관련된 사회적 지표

1) 스트레스 수준의 증가

우리나라 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Yeum & Kim, 2013;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3;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3). 전체적 스트레스 수준은 초등학교 2.01점(5점 척도기준, 이하 같음), 중학생 2.42점, 고등학생 2.57점으로 학교급으로 올라갈수록 상승하였다. 특히, 성적 및 입시로 인한 고교생의 스트레스 수준이 월등히 높았다(3.33점). 성적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Yeum & Kim, 2013).

주관적 행복을 묻는 질문에 ‘행복하다’와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의 스트레스 수준 분석에서,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의 성적 및 입시 원인으로 인한 스트레스 점수는 3.54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성적 및 입시, 부모관계가 학생들의 행복 및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Yeum & Kim, 2013) <Table 3>.

Table 2. Student' Daily Time

(Based on weekdays, %)

Age (year)	Country	Sleeping hours	Learning hours	Sport & exercise	Social service activities	Spare time & others
10~14	Korea	8 hr 20 min (34.7)	8 hr 5 min (33.7)	12 min (0.8)	0 min (0.0)	7 hr 22 min (30.7)
	Japan	8 hr 3 min (35.7)	5 hr 50 min (24.4)	47 min (3.3)	3 min (0.2)	8 hr 45 min (36.5)
15~24	Korea	7 hr 17 min (30.4)	7 hr 50 min (32.6)	12 min (0.9)	0 min (0.1)	8 hr 14 min (34.3)
	Japan	7 hr 48 min (32.5)	5 hr 20 min (22.3)	21 min (1.5)	2 min (0.2)	10 hr 21 min (43.1)
	US	9 hr 57 min (41.5)	2 hr 26 min (10.2)	41 min (2.9)	8 min (0.6)	11 hr 18 min (47.2)
	England	8 hr 47 min (36.6)	3 hr 49 min (15.9)	25 min (1.7)	7 min (0.5)	9 hr 38 min (40.1)
	Germany	8 hr 7 min (33.8)	5 hr 2 min (21.0)	25 min (1.7)	8 min (0.6)	9 hr 38 min (40.1)
	Finland	8 hr 10 min (34.0)	6 hr 6 min (25.4)	20 min (1.4)	4 min (0.3)	9 hr 8 min (38.0)

Note. () means the percent share of each item in 24 hours; Sourc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09). Study on the students' life patterns.

Table 3. Student's Stress by Cause

(Based on Five point scale)

Cause of stress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Happiness		Achievement		
				Happy [†]	Unhappy [‡]	Good	Pair	Poor
Number of students	1,807	2,656	2,641	5,642	980	1,588	2,826	1,993
Relation with parents	2.08	2.68	2.69	2.40	3.18	2.33	2.50	2.71
School achievement	2.48	2.95	3.33	2.84	3.54	2.66	2.95	3.23
Relationship with friends	1.79	1.80	1.83	1.72	2.21	1.66	1.81	1.90
Stress due to appearances	1.87	2.25	2.40	2.10	2.69	1.98	2.15	2.42
Financial problems	1.78	2.08	2.22	1.93	2.67	1.78	1.99	2.34
Total	2.01	2.42	2.57	2.25	2.91	2.13	2.33	2.58

Note. Source: Yeum & Kim (2013) Happiness index of child & youth. KORSOFA.

[†] Students saying 'I am happy'; [‡] Students saying 'I am not happy'.

한편 2011년 대비 스트레스 증감 분석에서 ‘성적 및 입시’, ‘부모관계’의 두 원인에 의한 초등학교의 스트레스가 2011년 대비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성적·입시로 인한 스트레스가 초등학교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Yeum & Kim, 2013: 26). 스트레스 증가는 우울감을 유발하는데 우울감을 경험한 정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였다. 결국, 우리나라 학생들의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은 학업과 관련되어 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았고 특성화 고교보다 일반계 고교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3).

2) 학생들의 정신 건강

학생들의 정신 건강 상태 역시 매우 위험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서검사결과, 상담이 필요한 ‘관심군’의 학생은 152,640명(7.2%)이며, 이들 중에서 자살생각 등 위험수준이 높아 우선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학생은 46,104명(2.2%)인 것으로 나타났다(Park & Lee, 2014; Ministry of Education, 2013b).

중고등학교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상 경험과 자살 생각도 높게 나타났다.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2012년 학생들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1.9%, 우울증상 경험률은 30.5%로 나타났으며 자살 관련 행동 중 자살 생각률이 18.3%로 나타났다. 자살 생각을 한 중·고등학교 중 자살을 계획한 사람의 비율은 6.3%이며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의 비율은 4.1%로 나타났다(Mistry of Health & Welfare, 2013) <Table 4>.

3) 심각한 자살률의 증가

실제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자살률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자살이 학생들의 주요 사망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

욱 불행한 것은, 학생의 자살률이 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28.4명으로 세계 1위로 기록된다는 것이다. 2009년 10대 자살률이 40.7%나 증가하면서 전체 청소년 사망원인 중에서 ‘자살’이 1순위가 됐다. 2008년 이전까지만 해도 10대 사망원인 1위는 ‘교통사고’이었으나 자살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학업 등에 대한 스트레스가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Kim & Woo, 2014).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자살충동은 초등학교 15.5%, 중학생 24.6%, 고등학생 25.7%으로 나타나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Yeum & Kim, 2013). 학생들이 자살충동을 느끼는 이유는 크게 부모님과 갈등을 비롯한 가족요인과 성적 하락 및 학업부담의 두 가지로 대별되어 나타났다. 자살충동을 느끼는 이유에서 ‘부모님과 갈등’으로 인한 자살충동이 중학생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43.5%). ‘성적 하락’으로 인한 자살충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였으며, 특히 고등학생들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17.3%) (Yeum & Kim, 2013) <Table 5>.

3. 교육적 유형과 관련된 사회적 지표: 응급처치와 안전 교육

현재 학교 교육에서 안전과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처치에 관한 실태 조사에서 학생들이 응급처치의 필요성을 높이 인식하였으나(80.1%) 학교에서 배운 경우(43.9%), 실제로 배운 적이 없다(30.0%), 마스크(15.6%)이나 독학(10.5%)으로 배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왔다(Hong, Nam, Choi, Wi, & Kim, 2001). 학교에서 응급처치법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결국, 응급처치에 대한 필요성이 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안전과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Lee와 Kim (2009)은 응급처치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매우 높다고 밝히면서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Table 4. Mind & Mental Health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

Variables	2009	2010	2011	2012
Ration of perception of stress	43.2	43.8	42.0	41.9
Ratio of depression experience	37.5	37.4	32.8	30.5
Ration of thoughts of suicide	19.1	19.3	19.6	18.3
Ration of suicide plan	-	-	6.8	6.3
Ration of suicide attempt	4.6	5.0	4.3	4.1

Note. Source: Mistry of Health & Welfare, (2013), 8th Student's emotional & behavior report.

Table 5. Reason to have Thoughts of Suicide

(%)

Variables	Categories	Total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Happiness	
						Happy [†]	Unhappy [‡]
Number of students		7,104	1,807	2,656	2,641	5,642	980
Ration of thoughts of suicide		22.7	15.5	24.6	25.7	16.0	54.9
Reason to have thoughts of suicide	Trouble with parents	36.8	27.6	43.5	34.2		
	School record stress	14.3	11.6	12.4	17.3		
	Trouble with friends	9.3	8.6	12.6	6.4		
	School bullying	4.8	10.5	4.5	2.8		
	Financial problems	4.2	7.9	1.7	5.0		

Note. Source: Yeum & Kim (2013) Happiness index of child & youth, KORSOFA.

[†] Students saying 'I am happy'; [‡] Students saying 'I am not happy'.

자료나 프로그램을 실제적이고 사례 중심으로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응급처치와 안전에 대한 교육은 특정한 교과와 일부 영역에서 형식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서 실효성이 미흡한 편이다.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안전교육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아동인구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수가 평균 4.3명에 이른다.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사망자수를 나타내고 있다.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고 아끼며 관리하는 능력, 그리고 생명을 보존할 줄 아는 지식이야말로 개인적으로 유용한(useful) 지식이다. 이는 중요한 교육적 요소이다. 이를 반영하듯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범교과학습 영역 39개 중 안전과 관련한 학습 주제는 '안전 교육', '안전·재해 대비 교육' 등 2개나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의 단속적(斷續的)이고 일회적인 각종 요구, 각종 상위법에서 비체계적이고 중복적인 요구로 인한 범교과학습 주제의 방만한 제시, 교과 내용과의 중복 등으로 안전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교육과정에서의 강조 여부를 떠나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행해지는 안전교육의 실체는 문서상 계획과 많은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논 의

1. 세 가지 요구 형태별(신체, 사회심리, 교육) 국가 교육과정의 역할

1) 신체적 유형의 요구형태와 국가 교육과정의 역할

역사적으로 다수의 교육과정 학자들은 교육과정에서 가르쳐야 할 영역으로 학생의 신체적 측면을 중요하게 다루어 왔다.

H. Spencer (1887)는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첫 번째로 가치로운 지식으로 직접적 자기 신체 보존에 유용한 건강, 보건, 위생, 생명과 직결된 과학적 지식을 강조하였다. 미국의 중등교육개발위원회의 중등교육의 7대 목표에서도 건강이 제1의 목표로 포함되어 있다(Schubert et al., 2002). 또한 Bobbitt (1924)은 교육과정 개발(How to make a curriculum)에서 10영역 160여 개의 교육목표 가운데 자신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시키었다.

미국의 교육정책위원회는 1940년대 모든 청소년을 위한 교육(Educational for All American Youth)에서 신체적 건강을 강조하였다(Ornestein & Hunkins, 2007). Frederick와 Farquar는 버지니아 주 학교 교육과정에 삽입되었던 아홉 가지 인간 활동 중 첫째로 생명과 건강 보호, 신체 상태 향상 등을 제안하였다(Ornestein & Hunkins, 2007). 위스콘신 주 교육부 역시 교육과정 개발 지침(Guide to Curriculum Building)에서 중학교 중핵교육과정으로 건강과 신체를 첫째로 강조하였다(Oliva, 2009). F. Stratemeyer는 교육과정 개발(Developing a Curriculum for Modern Living)에서 신체적 요구에 대한 만족, 정서적·사회적 요구에 대한 만족, 병과 부상을 피하고 치료하는 것 등을 신체·건강 교육과정으로 제시하였다(Ornestein & Hunkins, 2007). Oliva (2009) 역시 학생이 자신의 발달단계별로 신체적 필요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학교 교육에서 신체나 건강의 중요함이 꾸준히 강조되어 왔다. 따라서 국가 교육과정은 국민이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을 두고 건강과 체력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Olvia (2009)에 의하면 신체적 유형의 요구 형태에는 영양 섭취, 건강,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 운동과 휴식에 대한 요

구, 사춘기 시절 겪는 여러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요구, 신체적인 학생의 특별한 요구 등이 포함된다. 교육의 최종 목표와 수혜자가 학생이고 학생의 생명을 보존하고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고려할 때, 국가 교육과정 설계에서 학생의 건강과 체력 향상을 위한 신체적 유형에 관한 제반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이 자신의 신체적 유형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체적 유형의 교육과 관련된 사회적 지표를 분석하여 교육과정에 반영·예비하기보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계기교육 등으로 뒷마무리를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의 신체적 유형과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사회적 지표를 분석하여 국가 교육과정 설계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신체적 유형과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고 원인을 해결하는 내용이 국가 교육과정 설계 단계부터 제안되어야 한다.

2) 사회심리적 유형의 요구형태와 국가 교육과정의 역할

Hirst에게 있어서 교육의 핵심은 사회적 실체로서의 입문을 통하여 개인의 전반적인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사회적 실체는 사회적으로 발달된 일관성 있는 활동 양식을 의미하며, 활동 양식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활동으로서 그 범위는 신체적인 활동에서부터 이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단순한 기능에서 복잡한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Jang & Kim, 2011). Hirst의 사회적 실체가 국가 교육과정의 설계에 주는 시사점은 사회적 실체에 비추어 교육과정은 개인의 총체적인 요구를 장기적으로 최대한 만족시키는 좋은 삶(good life)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은 개인이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좋은 삶 혹은 행복한 삶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국가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1차적 원천으로서 학습자 측면과 연계해 볼 때 국가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교육이 결국 개인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한다는 당위적인 측면에 귀착된다.

Oliva (2009)의 사회심리적 유형의 개인 요구는 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것들이다. 이러한 유형에는 애정, 수용과 인정, 친밀감이나 소속감, 성공, 안정,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자 하는 요구 등이 포함되며 이것들은 Hirst가 말하는 ‘좋은 삶’을 만족시켜 주기 위한 요구이다. 교육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개인적인 성취로 귀결된다. 개인적인 성취를 얻기까지의 교육활동 속에서 학생들이 겪는 많은 사회

심리적 유형은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루어진다. Oliva (2009)가 말했듯이 자이존중감과 같은 심리적인 것이 순전히 심리적인 것만이 아닌 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앞서 각종 사회적 지표에서 나타난 사회심리적 유형은 단순히 개인적인 측면도 있지만, 타인과의 관계나 성격과 입시 등 외재적 원인에 영향을 받는 측면이 더 많을 것이다. 여기에는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사회심리적 영향도 있다. 초·중등학생들이 갖는 스트레스의 원천이나 정신건강 실태, 자살에 대한 생각 등을 종합해 본 결과가 이것을 예증한다. 스트레스 원인으로 작용하는 사회심리적 영향을 해소하는 것은 국가 교육과정 설계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안되어야 한다.

3) 교육적 유형의 요구형태와 국가 교육과정의 역할

교육적 유형의 요구는 교육에 대한 개인의 요구형태이다(Oliva, 2009). 그러나 교육적 유형의 요구 형태는 사회변화와 개인의 신체적·심리적 발달로 변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고전교육과 종교교육에서 직업 및 세속교육으로 교육의 형태는 변하여 왔다. 실용성과 생활적용을 강조하는 교육은 역사적으로 항상 시도되었으나 학교교육이 생활과 괴리가 있다는 비판은 계속되었다. 기초학습능력 역시 교육적 형태의 요구로 계속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적 유형의 요구형태는 시대의 변화를 묵고하지 못한다.

오늘날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에서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으며 그 범위나 수준도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직결되는 안전, 응급처치 등에 대한 지식은 가장 필수적이면서도 기본적인 것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령, 체험 중심의 응급처치 및 안전 교육에 대한 기본지식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의무적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몸을 통해 익힌 체득된 지식은 평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자산이 된다. 체득(體得)을 통한 체화(體化)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이면서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가령, 화재 등 재난의 상황에서는 근력은 극대화 되어야 탈출할 수 있는 힘이 발생하지만 지능은 감소한다고 한다. 뇌로 피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판단력이 흐려진다고 한다(ChosunIlbo, 2014.6.4). 평소 교육을 통해 체득하고 생활화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체험 중심의 안전과 응급처치 등의 교

육을 통해 생활화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응급처치와 안전 교육을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으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호주는 6학년 때 수상안전, 응급처치 실력 배양 등을 중요시하고 있다. 기초응급처치 수업을 현재의 7~8학년에서 5~6학년 과정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심폐소생술(CPR)을 현재의 9~10학년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선택으로 도입하는 것을 포함하여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은 Key Stage 2~4단계에서 필수 학습 영역으로 인명 구조와 소생법의 연습과 원리를 익히고 수상안전과 구조의 원리 및 기술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자전거를 배울 때, 교통법규를 익히는 과정과 자전거의 명칭 등을 공부 후 도로에서 실제로 자전거 타기를 배우고 마지막에는 자전거면허증을 교부받는다. 자전거 수업은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는가' 보다는 자전거 타기에서 꼭 필요한 수신호나 교통법규 등을 잘 숙지해서 안전하게 탈 수 있게 하는 교육이다(Park, 2011). 안전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통한 안전의 생활화 역시 중요한 것이다.

프랑스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들이 부모와 함께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아 학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안전을 지키는 습관을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다. 독일도 중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인명 구조자격증을 획득해야 한다(Munhwa-Ilbo, 2014.5.14). 이러한 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국가 교육과정의 설계에 주는 시사점

1) 신체적 유형 측면

학생들의 신체활동의 축소, 비만, 개인 이기주의의 팽배 등 사회병리 현상의 증대는 운동과 활동을 통한 치유적 기능이 교육에서 확대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학생들이 운동을 줄이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학업과 입시에 치중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국가 교육과정 설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신체적 유형의 요구에 대한 해답은 학교생활 시기는 물론 졸업 후 성인이 되어 살아가는 데에도 자신의 신체적인 유형의 요구를 이해하고 대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Oliva, 2009). 이것은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을 강조한 존 로크, 전인교육으로서 머리, 가슴, 손을 강조한 페스탈로치, 건강과 생명의 소

중함을 강조한 스펜서의 교육론과 그 맥락을 함께 한다.

신체적 형태의 교육 요구에는 술, 담배, 마약, 영양섭취,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도 포함이 되므로 이러한 부분도 국가 교육과정 설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신체적 유형과 관련된 교육내용은 이론적 지식으로 배우는 것으로 그 치유적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Whitehead (1929)의 주장처럼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하여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신체적 유형의 사회적 지표 분석 결과, 신체활동 부족의 원인은 학업 부담과 무관하지 않다. 국가 교육과정 설계에서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설계에서 학생의 학습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것은 교육내용의 적정화(optimizing the educational content)와 관련된다. 적정화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이 고려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총론 기준에서 핵심성취기준 근거로 교육내용을 적정화하고, 현장에서 교사가 운영하는 단계에서 교육과정을 적정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둘째, 부족한 신체활동을 늘리는 교육이 필요하다. 개인 활동보다 단체 활동, 경쟁보다 협력과 협동을 강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미래사회에서는 집단 지성과 공동체가 강조되며 협동과 협력을 통하여 함께 공유하는 자세를 배워야 하는 사회이다. 교육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갖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타인을 도울 수 있는 활동, 팀워크를 이루는 활동 등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여야 한다.

2) 사회심리적 유형 측면

사회심리적 유형의 사회적 지표 분석결과, 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의 증가, 위험스러운 수준의 정신건강, 자살충동과 자살률의 증가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liva (2009)에 의하면 사회심리적 유형의 학생의 요구를 확인하고 이것을 교육과정 설계에 잘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 교육과정 설계에서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정신을 건강하게 하며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교육과정 설계가 필요하다. Suk과 Park (2009)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분명한 자아를 확립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높은 자존감으로 인하여 주위환경의 스트레스에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Park (1983)은 왜곡된 자의식과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은 현실에 대한 부정적 행동과 그릇된 가치관을 낳게 하여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는데 실패하게 된다고 하여 자아개념의 형성을 강조하였다.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은 부모, 교사, 친구 등의 주위 사람들과의 사회적·인간적 관계로 형성되는 사회적 지지와 관련이 깊다. 사회적 지지는 다시 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부모 및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학생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서 학업 대처, 자기조절, 통제 등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한다(Ryan, Stiller, & Lyuch, 1994).

그러나 우리나라 학생들의 생활 만족도 분석에서 친구관계 > 가정생활 > 생활전반 > 학교생활 > 교사의 관계 순으로, 학교생활과 교사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Yeum & Kim, 2013). 따라서 사회심리적 요구에 부합하여 학교생활과 교사가 학생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의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 소질을 신장시키는 교육과정 설계가 필요하다. 앞에서 분석하였듯이 우리나라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 소질에 맞는 것을 할 때 행복하다는 응답이 많았다(Yeum & Kim, 2013). 자신이 잘하고, 흥미가 있고 적성에 맞는 것을 공부할 때 만족도와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사회심리적 형태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흥미와 적성, 잠재된 소질을 개발시키는 교육과정 설계가 필요하다.

3) 교육적 유형 측면

교육적 형태의 요구로서 우리 교육이 당면한 문제는 생명보존 교육이다. 이는 응급처치 및 구급, 인명구조, 재난대피 등의 안전교육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응급처치 및 구급, 재난대피 등의 안전교육은 중요성을 인식할 뿐 실제로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교육과 관련된 법은 초·중·고등학교법, 학교보건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아동 복지법에 의하면 안전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연간 총 44시간을 교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영역에서 일부 시간을 활용하여 형식적인 지도가 있으나 제대로 된 교육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교육적 형태의 사회적 지표 분석결과, 응급처치 및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시급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들 교육과정이 생명보존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 교육과정 설계에서 생명보존 교육으로 응급처치와 안전 교육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응급처치와 안전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선진국에서는 안전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고 사고발생 시 대

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체험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을 정규 교과에 신설하였다. 안전교육을 학습지도요령에 명시하고 과목별로 분산되어 있는 안전교육을 체계화하여 안전 관련 지식과 행동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였다(Yonhap News, 2015. 5.31). 중요한 것은 체험과 활동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응급처치, 인명구조, 재난대피 등은 체험을 통해 몸으로 익혀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체험중심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국가 교육과정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Oliva (2009)가 제안하는 교육에 대한 신체, 사회심리, 교육의 세 가지 요구 유형을 토대로 사회적 지표에 나타난 학생들의 삶의 모습에 근거하여, 국가 교육과정 설계에 주는 시사점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지표 분석을 통한 학생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신체, 사회심리, 교육의 세 가지 요구 형태별 국가 교육과정의 역할을 고찰한 후, 국가 교육과정 설계에 주는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사회적 지표로 드러난 학생들의 삶의 모습에서 많은 학습시간, 부족한 신체활동 그리고 스트레스와 자살 충동 증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병리현상의 근본 원인을 한마디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주요 원인에 성적과 입시의 부담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태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추후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교육과정이 갖는 본질적 의미가 퇴색되고 학생들에게 학업 부담을 제공하는 원인이 된다면 분명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필요한 것을 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에서 과소(寡少)하게 제시되는 것과 불필요하게 과잉되게 제시되는 것은 문제를 야기한다. 국가 교육과정 설계 시에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왜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숙의가 필요하다. 무엇이 학생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인지 옥석을 가려야 할 것이다.

Oliva가 제안하는 교육에 대한 요구의 형태는 학생 개인의 요구이다. 그러나 이들 요구는 학생들이 직접 요구를 하기보다 전문가에 의해 제안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전문가는 본고에서 유형별로 제안하고 있는 학습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내용의 적정화, 협력심을

키우는 신체활동과 교육, 학생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교육, 학생의 흥미와 적성, 소질을 신장시키는 교육, 응급처치와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강화를 국가 교육과정 설계 시 반영하기를 기대한다.

신체, 사회심리, 교육의 세 가지 유형별 사회적 지표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함의(含意)는 학생들의 실제 삶에 유익한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경우 교육 과정은 존립가치를 가지며 교육은 학생들의 실제 삶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끝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본고에서 제시하지 못한 다양한 사회적 병리현상을 교육으로 예방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Back, G. S. (2007). *Study on social needs assessment and input system for the national curriculum standards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 Bobbitt, F. (1924). *How to make a curriculum*. Boston: Houghton Mifflin.
- Chang, S. H., & Kim, M. J. (2011). Hirst's 'social practice' and its implications for philosophy of curriculum. *Philosophy of Education*, 44, 255-285.
- Dewey, J. (1902). *The child and the curriculu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isner, E. W. (1982). *Cognition and curriculum: A basis for deciding what to teach*. NEW YORK: Longman.
- Hong, H. J., & Kim, D. S. (2010). Measuring the effects of school science curriculum on students science outcomes.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8(1), 87-112.
- Hong, K. Y., Nam, C. H., Choi, S. B., Wi, G. B., & Kim, K. Y. (2001).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knowledge level on first aid.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18(3), 77-88.
- Kim, G. H., An, S. Y., Jang, S. S., Kim, M. R., & Choi, D. S. (2009). *Study on the students' life patterns*. Sejong: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Kim, S. H., & Woo, S. J. (2014). The effect of clinical art therapy programs for adolescent suicide preven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7(2), 100-108.
- Lee, J. E., & Kim, S. J. (2009). Comparative study of needs about first aid education between elementary school students & middle school students.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1(6), 2017-2117.
- Lee, S. M., & Hong, H. J. (2010). The relationship and improvement measures between the national curriculum and the educational laws and regulations. *The Journal Curriculum Studies*, 37, 67-94.
- Lim, E. (2012). *Trend of students' aptitude & learning time*. KRIVET Issue Brief 3, (2012, 5, 15.).
- Ministry of Culture & Athletics. (2012). 2012 Sport white paper. Sejong: Author.
- Ministry of Education. (2013a). *Student's emotional & behavior report*. Sejong: Author.
- Ministry of Education. (2013b). *Student's mental health report*. Sejong: Author.
- Ministry of Education. (2013c). *National curriculum guide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Sejong: Author.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3). Youth white paper. Sejong: Author.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3). *8th Student's emotional & behavior report*. Sejong: Author.
- Oliva, P. F. (2009). *Developing the curriculum* (7th ed.). Seoul: Pearson Education, Inc.
- Ornstein, A. C., & Hunkins, F. P. (2007). *Curriculum: Foundation, Principles, and Issue* (4th ed.). Seoul: Pearson Education, Inc.
- Park, H. J. (1983). *A study of meaning of life of high school stud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Ewha Women's University.
- Park, K. S., & Lee, G. Y. (2014). Factors influencing emotion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7(2), 109-120.
- Park, S. S. (2011). Enjoyable Gym lesson. *Textbook Research*, 63, 51-55.
- Ryan, R. M., Stiller, J. D., & Lyuch, J. H. (1994). Representations of relationships to teachers, parents, and friends as predictors of academic motiva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4, 226-249.
- Schubert, W. H., Schubert, A. L., & Carroll, W. M. (2002). *Curriculum books: The first hundred years* (2nd ed.). New York: Peter Lang.
- Spencer, H. (1887). *Intellectual, moral, and physical*. New York: D. Appleton and Company.
- Suk, M. H., & Park, J. W. (2009).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tress, self respect & stress response in high school student.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11 (2), 556-565.
- Tyler, R. W. (1949).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hitehead, A. N. (1929). *The aims of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 Yeum, Y. S., & Kim, K. M. (2013). *Happiness index of child & youth*. Seoul: KORSOFA.